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문의: 수출입과장 조영태(2110-5331), 사무관 송정훈(2110-5333)

최근 취약 신흥국 동향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

□ 지난 6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*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

* 버냉키 발언(6.19일) :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된다면 금년 중 증권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2014년 중반경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을 것

○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신흥국 중 경상수지 적자가 큰 국가의 경우 자금유출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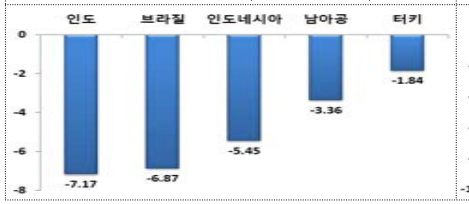
- 또한, 국제 원자재 가격*도 하락하여 신흥국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

* CRB 지수 : ('12.9월) 310.6 → ('13.1월) 298.6 → (3월) 294.2 → (5월) 287.1 → (7월) 285.5
로이터 지수 : ('12.9월) 3172 → ('13.1월) 2997 → (3월) 2947 → (5월) 2828 → (7월) 27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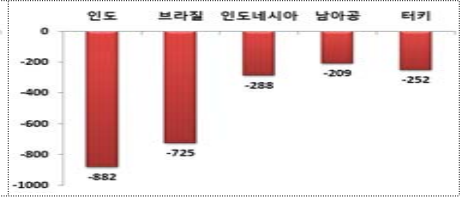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인도·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에서 외자 이탈에 따라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 양상이 가시화

- 경상수지 적자규모 및 추세, 환율변동 등을 고려할 때 인도·인니·브라질·남아공·터키 5개국(F5)의 외환시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(모건스탠리)

< 통화가치 (달러대비, 7.20~8.20일, %) >



< 경상수지 (최근 1년, 억달러) >



* 경상수지 : 인도·인도네시아는 '12.4월~'13.3월 기준, 브라질·남아공·터키는 '12.7월~'13.6월 기준

※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가치는 0.08% 하락, 경상수지는 592억달러 흑자

※ 태국·말레이시아·베트남의 경우 화폐가치는 소폭 하락했으나,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* 외환보유액('13.7월말, 억달러) : (태국) 1,722 (말레이시아) 1,37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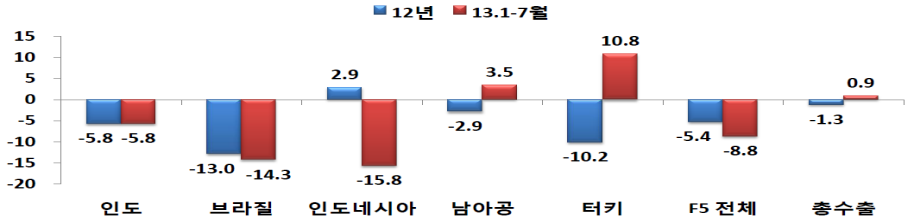
□ '12년 5개 취약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429.1억달러로, 총수출 중 7.8% 차지

○ 금년 들어 5개 취약 신흥국 중 터키(FTA 효과)와 남아공(석유제품 수출 급증)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,

○ 해당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도·브라질·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5개 신흥국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.3%로 하락

* 전체 수출 중 對F5국이 차지하는 비중(%) : ('12년) 7.8 → ('13.1~7월) 7.3

< 국가별 수출증가율 (%) >



□ 외환위기 발생 등으로 5개 취약 신흥국(F5)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對F5 수출은 감소할 수 있으나,

○ '12년부터 시작된 5개 신흥국의 경기둔화는 이미 우리 수출실적에 반영되어 있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

○ KOTRA 해외무역관에 확인한 결과* 현지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급격한 수출감소를 예상하지 않는 분위기

* (인도) 91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성장률이 1% 미만, 외환보유액이 6억달러였으나, 현재는 5% 이상 성장하고 있고 2,846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없음
(터키) 달러 자금보다는 독일·영국에서 들어오는 유로화 자금이 많음

○ 美·EU 경기회복, 對中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5개 신흥국의 위기가 하반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

□ 취약 5개국의 위기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,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

* 태국·말레이시아 등 美 출구전략 영향이 우려되는 기타 신흥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송정훈 사무관(☎ 02-2110-53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| 국가별 동향 및 수출실적

1. 인도

□ **(동향)** 재정건전화*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, 제조업 생산둔화 등으로 '13.1Q 성장률이 4.8%에 그침**

* '16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% 이내로 축소하는 계획 발표

** 연도별 경제성장률(%) : ('09년) 8.6 → ('10년) 9.3 → ('11년) 6.2 → ('12년) 5.0

○ SW 등 서비스수지의 흑자폭은 확대되고 있으나, 상품수지*가 대폭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** 및 루피화 가치 급락***

*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, 석유와 금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지가 악화

** 경상수지(억달러) : ('09년) △207 → ('10년) △519 → ('11년) △592 → ('12년) △934
'13.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,846억달러로(세계9위), 91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(6억달러)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환을 보유 중

*** 8.20일 현재 달러당 64.1루피로, 사상 최고치 경신

○ 외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으로 인해 FDI 유입액이 급감*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주요기관의 전망치**(5.5% 내외)보다 저조할 우려

* '12년 인도의 FDI 유입액은 224억달러로, 전년대비 38% 감소

** '13년 경제성장률 전망(%) : (IMF) 5.6 (World Bank) 5.5

□ **(對인도 수출실적)** '13.1~7월 수출은 67.3억달러로, 전년동기비 5.8% ↓

* 월별 수출증가율(%) : (1월) △5.3 → (2월) 3.7 → (3월) △6.7 → (4월) △11.3 → (5월) △1.8 → (6월) △7.9 → (7월) △10.3

○ '03년 이후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, 인도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수위축 등으로 '12년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

* 수출증가율(%) : ('10년) 42.7 → ('11년) 10.7 → ('12년) △5.8 → ('13.1~7월) △5.8

○ 품목별로는 합성수지·석유화학합섬원료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, 자동차부품·철강·석유제품의 수출은 크게 감소

< 수출상위 5대 품목의 실적 ('13.1~7월, MTI 3단위 기준) 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순위	품목	2012년		2013년 1~7월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1	자동차부품	1,594	2.7	815	△17.3
2	철강판	1,454	△3.4	740	△20.5
3	합성수지	873	17.6	576	13.6
4	석유제품	726	△3.0	333	△26.0
5	석유화학합섬원료	367	1.1	320	82.6
	전체 수출	11,922	△5.8	6,730	△5.8

※ 품목별 순위는 '13.1~7월 실적 기준

2. 브라질

□ **(동향)** '12년은 0.9% 성장에 그쳐 부진했으나, '13.1Q는 수출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가에 힘입어 1.9% 성장

* 연도별 경제성장률(%) : ('09년) △0.3 → ('10년) 7.6 → ('11년) 2.8 → ('12년) 0.9

○ 원유수출의 감소로 인해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, 서비스 수지 및 소득수지가 악화되면서 경상수지* 적자폭이 확대

* 경상수지(억달러) : ('12.2Q) △132 → (3Q) △89 → (4Q) △201 → ('13.1Q) △248

** '13.6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3,694억달러('13.7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,297억달러)

○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상(7.25% → 8.5%)하고 토빈세*를 폐지(6.4일)하는 등 여러 통화정책을 시행 중

* '09년 단기투자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채권투자 수익에 6%의 세금 부과

○ 월드컵('14년) 및 올림픽('16년) 개최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와 정부의 내수부양책 등으로 금년 2.7% 내외로 성장할 전망

* '13년 경제성장률 전망(%) : (IMF) 2.5 (World Bank) 2.9

□ **(對브라질 수출실적)** '13.1~7월 수출은 56.3억달러로, 전년동기비 14.3% ↓

* 월별 수출증가율(%) : (1월) 8.7 → (2월) △50.9 → (3월) 6.4 → (4월) 19.2 → (5월) △25.8 → (6월) △16.6 → (7월) △2.2

○ '04년 이후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, '12년 브라질 성장률이 둔화되어 우리 수출 역시 감소세로 전환

* 수출증가율(%) : ('10년) 46.0 → ('11년) 52.5 → ('12년) △13.0 → ('13.1~7월) △14.2

○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·반도체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현대차 공장의 생산 확대로 자동차 수출은 급감(자동차부품의 수출은 급증)

< 수출상위 5대 품목의 실적 ('13.1~7월, MTI 3단위 기준) 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순위	품목	2012년		2013년 1~7월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1	자동차부품	1,116	72.6	861	63.0
2	무선통신기기	626	△40.9	652	81.3
3	반도체	665	162.6	614	61.1
4	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	863	48.7	531	△6.1
5	자동차	1,100	△52.0	355	△55.0
	전체 수출	10,286	△13.0	5,626	△14.2

※ 품목별 순위는 '13.1~7월 실적 기준

3. 인도네시아

□ **(동향)** '12년의 높은 성장세(6.2%)에 이어 '13.1Q에도 민간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는 등 내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6.1% 성장

* 연도별 경제성장률(%) : ('09년) 4.6 → ('10년) 6.2 → ('11년) 6.5 → ('12년) 6.2

○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어 경상수지 적자* 지속

*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 중
경상수지(억달러) : ('12.2Q) △82 → (3Q) △53 → (4Q) △78 → ('13.1Q) △58 → (2Q) △98

○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겠으나,

-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개선으로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, 정부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*되어 금년 6% 내외로 성장할 전망

* '14.4월 총선 및 7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소비가 하반기에 크게 확대될 전망

□ **(對인니 수출실적)** '13.1~7월 수출은 67.1억달러로, 전년동기비 15.8% ↓

* 월별 수출증가율(%) : (1월) △4.2 → (2월) △8.6 → (3월) △10.9 → (4월) △24.6 → (5월) △10.2 → (6월) △28.1 → (7월) △26.6

○ '09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, '12년에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금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

* 수출증가율(%) : ('10년) 46.0 → ('11년) 52.5 → ('12년) 2.9 → ('13.1~7월) △15.8

○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석유제품·철강·편직물·합성고무 등 수출상위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

< 수출상위 5대 품목의 실적 ('13.1~7월, MTI 3단위 기준) 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순위	품목	2012년		2013년 1~7월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1	석유제품	5,514	△14.7	2,094	△35.7
2	철강판	1,078	20.2	575	△11.7
3	합성수지	603	4.7	380	8.0
4	편직물	667	△6.5	369	△8.8
5	합성고무	358	△11.5	163	△24.2
	전체 수출	13,955	2.9	6,711	△15.8

※ 품목별 순위는 '13.1~7월 실적 기준

4. 터키

□ **(동향)** '10~'11년 2년 연속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, '12년 들어 성장률이 급감하였으며 '13.1Q에도 3.0% 성장에 그침

* 연도별 경제성장률(%) : ('09년) △4.8 → ('10년) 9.2 → ('11년) 8.8 → ('12년) 2.2

○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*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환율상승 및 주가 급락**

* 경상수지(억달러) : ('12.3Q) △79 → (4Q) △98 → ('13.1Q) △162 → (2Q) △197
** ISE100 지수 변화 : (5.22일) 93,398 → (6.24일) 70,641, 24.4% ↓

- 중앙은행이 2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*하는 등 달러 유출에 대응** 중

* 콜금리 추이 : (6월) 6.5% → (7.23일) 7.25% → (8.20일) 7.75%
** 유럽측 FDI 유입이 많으며, 과거 단기자금 유출입시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았음

○ 반정부 시위의 터키 전역 확산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있어 금년 경제성장은 3% 초반에 머물 전망(IMF 3.4%)

□ **(對터키 수출실적)** '13.1~7월 수출은 30.7억달러로, 전년동기비 10.8% ↑

○ 금년 1/4분기에는 對터키 수출이 부진(△8.1%)했으나, 한-터키 FTA 발효(5.1일) 이후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

* 월별 수출증가율(%) : (1월) △0.5 → (2월) △21.1 → (3월) △1.6 → (4월) 21.1 → (5월) 35.9 → (6월) 20.2 → (7월) 29.7

- FTA 발효 이후인 5~7월 수출은 14.1억달러로, 전년동기비 28.6% 증가

○ 품목별로는 FTA 수혜품목인 석유화학(합성수지 등)·철강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현대차 공장의 생산확대에 따라 자동차 수출은 급감

< 수출상위 5대 품목의 실적 ('13.1~7월, MTI 3단위 기준) 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순위	품목	2012년		2013년 1~7월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1	합성수지	395	△8.9	398	59.6
2	자동차	443	△34.0	220	△22.7
3	자동차부품	311	△6.7	220	15.5
4	철강판	270	△21.3	203	16.2
5	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	169	12.0	188	59.0
	전체 수출	4,552	△10.2	3,071	10.8

※ 품목별 순위는 '13.1~7월 실적 기준

5. 남아공

□ **(동향)**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금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0.9%에 그치는 등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

* 연도별 경제성장률(%) : ('11년) 3.5 → ('12년) 2.5 → ('13.1Q) 0.9

○ EU 수요부진, 中 경기둔화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및 자국 화폐인 랜드화의 가치 하락*

* 8.21일 현재 달러당 10.24랜드로, 연초대비 랜드화 가치가 19.5% 하락

○ 정부의 인프라 사업 확충에도 불구하고, 주요 수출업종인 광산업계 파업, 만델라 크래시* 등으로 인해 금년 2.0% 성장**에 그칠 전망(IMF 2.0%)

*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前대통령(94) 임종시 백인과 흑인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남아공 경제의 혼란을 의미하는 신조어

** 남아공 정부의 성장률 전망 : (3월) 2.7% → (5월) 2.4% → (7월) 2.0%

□ **(對남아공 수출실적)** '13.1~7월 수출은 14.1억달러로, 전년동기비 3.5% ↑

* 월별 수출증가율(%) : (1월) △11.0 → (2월) 91.3 → (3월) 16.9 → (4월) △23.2 → (5월) △18.8 → (6월) △18.2 → (7월) △10.1

○ '10~'11년 2년 연속 수출이 급증한 후 '12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, 금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

* 수출증가율(%) : ('10년) 54.2 → ('11년) 35.2 → ('12년) △2.9 → ('13.1~7월) 3.5

○ 품목별로는 석유제품·자동차부품·철강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타국 현지기업의 생산확대로 자동차 수출은 2년 연속 크게 감소

< 수출상위 5대 품목의 실적 ('13.1~7월, MTI 3단위 기준) 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순위	품목	2012년		2013년 1~7월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1	자동차	818	△17.8	460	△12.4
2	석유제품	288	74.0	351	77.0
3	건설광산기계	110	17.7	68	0.0
4	자동차부품	78	84.1	54	9.2
5	철강판	46	△28.8	49	70.1
	전체 수출	2,188	△2.9	1,405	3.5

※ 품목별 순위는 '13.1~7월 실적 기준